

### 3) 승평사은 이후의 사림활동

『항남악부』에는 그밖의 사림들의 행적이 각각 하나의 표제로 소개되어 있다. 사휴정(四休亭)은 부 서쪽 4리에 위치한 정자로, 읍인 장홍적(張弘迪)이 형인 홍도와 동생 홍경·홍민과 같이 연금동상(聯衾同床)하던 곳으로 이름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부 북쪽 부유현에 있는 상호정(相好亭)은 읍인 옥천 조씨 입향조 유의 손자인 지산(智山)·지곤(智崑)·지윤(智崙)·지강(智崗) 4형제가 동거일실(同居一室)하던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의 행적은 형제간의 우의를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실천이라는 점에서 강조되었다.

이에 대해 조억(趙億)의 행적은 가례(家禮)의 이행을 통해 효를 실천한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그는 일찍이 미암 유희춘(柳希春 : 1513~1577)을 따라 의리(義理)를 토론하였으며, 친상(親喪)에 진례(盡禮)하여 여묘 3년을 살아 후인들이 그 지명을 시묘동이라 불렀다고 한다.(『항남악부』, 「시묘동」)

양벽암(漾碧巖 : 양벽이란 푸른 빛을 물 위에 뜨게 한다는 뜻)은 부 북쪽 부유현 읍에 있는 양벽정(漾碧亭) 정자 밑의 암벽이다. 양벽정은 조대춘이 지어 거하던 곳이다. 그의 자는 춘지(春之), 호는 삼탄(三灘)이며, 입향조인 건곡 조유의 5세손이다. 학행이 있고 영리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며, 부유에 정자를 세워 양벽이라 이름을 지었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 1510~1560)와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 : 1537~1582)이 일찍이 선유(船遊)하면서 정자 밑 암벽에 이름을 새겨넣었다. 김인후와 중봉(重峰) 조헌(趙憲 : 1544~1592)의 제영(題詠)이 전해진다.(『항남악부』, 「양벽암」)

배숙의 아들 배영담(裴齡聘)은 성리학에 정진하였고 선조 때 참봉으로 추천되었다. 한강(寒岡) 정구(鄭逵 : 1543~1620)의 서문이 실린 문집이 있었다고 하나 전해지지 않고 있다. 배숙을 학행으로 포천(褒薦)하자는 건의는 그의 나이 65세 때 있었는데, 아마 아들 영담의 역할이 있었겠지만 그 발단은 그의 본관인 경상도 성주에서 있었다.

『성주사림통문(星州士林通文)』은 1580년에 성주유림 김석두(金錫斗)·이덕기(李德基)·권상도(權相度) 등이 매곡을 학행으로 포천해야 함을 널리 알리고자 한 글이다.(『매곡집』 참조) 이어 순천에서도 같은 해에 장이강·정사형·박대봉 등이 연명으로 「군유정본관표(郡儒呈本官表)」를 내어 배숙을 학행으로 포상할 것을 향천(鄉薦)하였다. 이들이 낸 등장(等狀)에 대한 관의 판결, 즉 제음(題音)은 “사림의 공론에 따라 관에서도 영문(營門)에 전보(轉報)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라 같은 해에 순천 유생 진사 김광엽(金光燁), 생원 조장(趙璋), 생원 허사증(許思曾) 등은 같은 내용의 「군유정순영장(郡儒呈巡營狀)」을 내었다. 이에 대한 제음은 “충훈(忠勳)이 있는 자의 후예(後裔)로서 이와 같이 명행(名行)이 높으니 이를 높이 평가하여 널리 알릴 일이다.”라는 것이었다.

이어 다음해인 1581년에는 진사 김광엽 등의 순천유생뿐만 아니라 광주생원 이여정(李汝楨), 남원진사 이대주(李大胄) 등 전라도의 대표적 유생들이 연명된 등장을 도(道) 순영(巡營)에 내었다.(『매곡집』, 「도유정순영장」) 이에 대해 도 순영에서는 “본관(本官)에서 보고 받은 바향유지서(鄉儒之書)의 내용이 도내(道內) 명석(名碩)의 공의(公議)라 실적(實蹟)이 없이 이와 같이 칭미(稱美)할 리가 없으나 혹 이러한 것이 있다면 다행이므로 물러가 연말까지 기다릴 일이다.”라는 제음을 내렸다.

이상과 같은 배숙에 대한 사림의 천거활동에서 이때, 즉 16세기 말에 이미 지역적으로 사림들간의 공론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범위가 군 단위를 넘어선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18세기 이후 나타난 후손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우 건립의 양상과도 구별된다.